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

임진형^{1*}, 고지애²

¹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²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the Job Satisfaction of Child-Care Teachers

Jin-Hyung Lim^{1*}, Ji-Ae Ko²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eju Halla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J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과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행복감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무만족도를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이며, 이 과정에서 행복감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사 개인의 변인인 행복감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teaching efficiency of childcare teach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99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daycare centers in the J region, Korea. For collecting data,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an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and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happiness and teaching efficacy affected job satisfaction. The sense of happiness and teaching efficacy of childcare teachers can affect job satisfaction, and it is meaningful to present basic data on teachers' personal areas of life, happiness and efficacy for job satisfaction.

Keywords : Childcare Teacher, Teaching Efficacy, Happiness, Job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1. 서론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돌봄과 동시에 흥미와 발달에 적

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 질 높은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Corresponding Author : Jin-hyung Lim(Cheju Halla University)

email: jhlim@chu.ac.kr

Received October 25,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November 30,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만성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직무 자체나 직무수행 결과로 인해 야기되는 긍정, 중립, 부정의 정서 상태를 말하며, 직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3]. 직무만족도는 영유아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이며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2].

직무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직무수행, 교수효능감,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4],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및 이직 의도를 감소시킨다[5].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은 영유아 보육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행복감[6-10], 자아존중감[11], 교수 효능감[4,12]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조직 규모, 조직문화, 직무환경 등[13]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중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언급되어 왔다[10,14-16].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교수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판단을 의미한다[17].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적게 받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유아에게 적극적이며, 어려운 과업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려 한다[18]. 반면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직무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9].

교수효능감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도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이 많아졌으며[20],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긍정적 민감성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21]. 또한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영유아에 대한 발달지식 및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22]. 교수효능감은 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인성발달, 인지 및 창의성 발달 등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23]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24]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23],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24].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등으로 정의되며[25]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상태이다[23]. 행복한 교사는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여 건강하며,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열정적으로 유아와 생활한다[26].

관련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23,27-29], 역할수행 능력[19], 자아탄력성[30]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6-10]가 높은 반면 직무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1,32]. 이러한 결과에서 교사의 행복감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 전문성 발달수준을 비롯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과 각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과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 교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행복감의 매개 역할을 밝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밝힌 연구[7], 원장의 감성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복감의 매개 역할을 검증한 연구[33], 유아교사의 성인 애착과 직무환경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완전 매개를 보고한 연구[9]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해서 볼 때, 보육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도 행복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 만족도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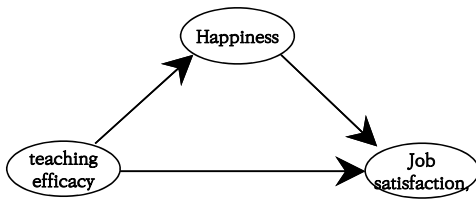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 J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399명이다. 연구 동의를 얻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43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39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문항의 적절성, 설문지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399)

Characteristic		N	%
Age	20's	89	22.3
	30's	110	27.6
	40's	144	36.1
	50 years old or older	56	14.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7	6.8
	College	264	59.6
	University	99	24.8
	Graduate School	9	2.3
Career	less than 1 years	28	7.0
	less than 1-3 years	41	10.3
	less than 3-5 years	59	14.8
	more than 15 years	271	67.9
All(N)		399	100

2.2 연구도구

2.2.1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Enochs와 Riggs(1990)가 개발한 교사의 과학 교수효능감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34]를 신혜영(2004)이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35]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 효능감(9문항), 개인 효능감(13문항)을 포함한 2개의 하위요인과 전체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일반효능감 .85, 개인 효능감은 .89이며, 전체 신뢰도는 .80이다.

2.2.2 보육교사의 행복감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Argyle (2001)이 개발하고[36] 권석만(2008)이 변안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37]를 최영옥(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31]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적 행복(6문항), 외적 행복(10문항), 자기조절 행복(5문항)을 포함한 3개의 하위요인과 전체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내적 행복 .90, 외적 행복 .90, 자기조절 행복 .86이며 전체 신뢰도는 .94이다.

2.2.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성연 등(2011)이 개발한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 만족 척도(K-CTJSS)' [38]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장의 운영방식 및 태도(10문항), 사회적 인식 및 처우(8문항), 보육환경과 복지(8문항), 보육업무(6문항), 동료 교사와의 관계(4문항), 학부모와의 관계(4문항)를 포함한 6개의 하위요인과 전체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원장의 운영방식 및 태도 .96, 사회적 인식 및 처우 .86, 보육환경과 복지 .92, 보육업무 .87, 동료교사와의 관계 .92, 학부모와의 관계 .92이며 전체 신뢰도는 .94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개인적 배경, 교수

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 절차 [39]에 따라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 만족도간의 관계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42(SD=.35)로 나타났고, 일반적 교수효능감(M=3.46, SD=.49), 개인효능감(M=3.39, SD=.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3.41(SD=.54)로 나타났고, 외적행복(M=3.66, SD=.52), 내적행복(M=3.54, SD=.60), 자기조절행복(M=3.03, SD=.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직무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60(SD=.28)로

나타났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M=4.03, SD=.56), 보육 환경과 복지(M=3.84, SD=.72), 학부모와의 관계(M=3.79, SD=.56), 원장의 운영방식(M=3.76, SD=.74), 보육업무(M=3.17, SD=.57), 사회적인 인식 및 처우 (M=3.02, SD=.7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results (N=399)

Variables		M	SD
teaching efficacy	general teaching effectiveness	3.46	.49
	personal teaching effectiveness	3.39	.41
	total	3.42	.35
happiness	internal happiness	3.54	.60
	external happiness	3.66	.52
	self-control happiness	3.03	.68
	total	3.41	.54
job satisfaction	Chief's Operation method	3.76	.74
	Social Awareness and Treatment	3.02	.70
	Childcare Environment and Welfare	3.84	.72
	childcare work	3.17	.57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4.03	.56
	relationship with parents	3.79	.56
	total	3.60	.28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teaching efficacy	1	1													
	2	.29**	1												
	3	.84**	.75**	1											
happi- -ness	4	.19**	.44**	.38**	1										
	5	.20**	.36**	.35**	.78**	1									
	6	.19**	.34**	.33*	.66**	.67**	1								
	7	.22**	.42**	.39**	.90**	.89**	.88**	1							
job satis- -faction	8	.23**	.19**	.27**	.38*	.38**	.34**	.41**	1						
	9	.29**	.10*	.26**	.30**	.33*	.29**	.34**	.42**	1					
	10	.19**	.24**	.27**	.31**	.36*	.25**	.34**	.74**	.43**	1				
	11	.08	.12*	.12*	.28**	.21**	.26**	.28**	.35**	.21**	.34*	1			
	12	.20**	.24**	.28**	.30**	.38*	.24**	.34**	.34**	.19**	.38*	.21*	1		
	13	.24**	.34**	.26**	.37**	.43**	.30**	.40**	.24**	.28*	.30*	.06	.42*	1	
	14	.30**	.30**	.38**	.48**	.52**	.42*	.55**	.80**	.65*	.80**	.58**	.60**	.53**	1

** $p < .01$, * $p < .05$

1. general teaching effectiveness, 2. personal teaching effectiveness, 3. teaching efficacy(total), 4. internal happiness, 5. external happiness, 6. self-control happiness, 7. happiness(total), 8. Chief's Operation method, 9. Social Awareness and Treatment, 10. Childcare Environment and Welfare, 11. childcare work, 12.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13. relationship with parents, 14. job satisfaction(total)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 교수효능감,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행복감,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전체와 행복감 전체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r=.39, p<.01$)이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전체와 직무만족도 전체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r=.38, p<.01$)이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 전체와 직무만족도 전체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r=.42, p<.01$)이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2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가정이 위배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의 공차(Tolerance)값이 .92~.92로 .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 VIF값이 1.17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계수는 1.94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42]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이 매개변수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는데, 교수효능감($\beta=.39, p<.01$)은 행복감을 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0.39, p<.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교수효능감($\beta=.39, p<.01$)은 직무만족도를 1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6.82, p<.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과 매개변수인 행복감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beta=.21, p<.01$)과 매개변인인 행복감($\beta=.44, p<.01$)은 직무만족도를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89.58, p<.01$). 이는 2단계에서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를 14% 설명한 것보다 17%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인 교수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2단계($\beta=.21, p<.01$)보다 3단계($\beta=.44, p<.01$)에서 감소하여 매개 효과 검증 절차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행복감은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 매개하여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4.59$ ($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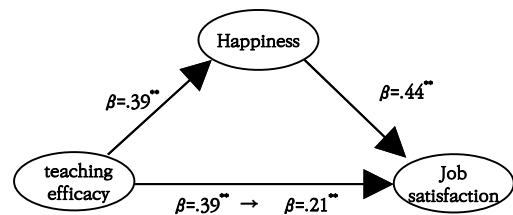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the Job Satisfaction

Step	Path		B	β	t	R ²	F
1	Teaching Efficacy	→	.58	.39	8.39**	.15	70.39**
2	Teaching Efficacy	→	.47	.39	8.17**	.14	66.82**
3	Teaching Efficacy	→	.26	.21	4.58**	.31	89.58**
	Happiness		.36	.44	9.81**		

** $p<.01$

4.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에 따라 요약 및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행복감,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연구결과[10,14-16]와 일치하였으며,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 6-9]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은 행복감을 가져오고 이런 긍정적 감정이 전이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내적 행복, 외적 행복, 자기조절 행복, 직무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행복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많아지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14-16]와 유사한 내용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신념을 지닌 보육교사는 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가 높았으며 행복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수 행동이 영유아의 성취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열정으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만족감과 함께 행복감을 누리게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은 영유아 교사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사가 자신의 업무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 행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32]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직무만족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행복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행복감은 교수효능감의 수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2,32,33]와 연결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

보육 기관 혹은 국가 중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2], 국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 아래 기관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교사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을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사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직종과 달리 오랜 시간 영유아들과 함께 보내며 정서 노동 등을 동반하는 보육교사들의 고충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3]. 교사의 행복감은 직무만족도와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행복감은 개인마다 잠재된 재능과 특성을 찾아 연습함으로써 개발될 수 있는 삶의 습관이자 기술이다[40]. 영유아 교사들이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을 토대로 행복감과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41].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유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나 교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행복감을 높여 나가며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7].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개의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 각 변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특성과 개별적인 심층 면담 등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매개하는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E. Y. Kim, E. H. Pack, Job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3, No.2, pp.303-323, 2006.
- [2] E. H. Lee, H. S. K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Workplace and Happiness on Job Satisfaction of

-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10, No.3, pp.1-19, 2020.
DOI: <http://doi.org/10.30528/jolss.2020.10.3.001>
- [3] E. J. Son, T. T. Park, The effect of teachers' 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on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16, No.1, pp.233-253, 2012.
- [4] Y. T. Park, K. N. Lee, S. Y. Ha, Early Childhood Teacher's 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Creative Personali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6, No.1, pp.275-298, 2009.
- [5] M. N. Yoo, N.R. Shin, Childcare Teachers' Work-relate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Life-span Studie*, Vol.3, No.2, pp.73-85, 2013.
- [6] J. W. Kim, H. S. M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directo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4, No.5, pp.85-105, 2014.
DOI: <http://doi.org/10.18023/kiece.2014.34.5.004>
- [7] S. R. Kim, Y. M. Kim,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on Job Satisfaction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25, pp. 173-202, 2020.
- [8] J. K. Kim, B. H. Shin, K. M. Kim, The Effect of Happiness on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in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Teaching Efficac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9, No.1, pp.159-176, 2017.
DOI: <http://dx.doi.org/10.21075/kacs.2017.19.1.159>
- [9] S. J. Lee, S. O. Kim,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s of Adult Attachment and Job Environment to Job Satisfaction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9, No.4, pp.171-188, 2019.
DOI: <http://dx.doi.org/10.21213/kipec.2019.19.4.171>
- [10] H. I. Hwang, J. H. Tak, S. H. Hong, Impact of Resili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7, No.3, pp. 411-432, 2013.
- [11] K. J. Jung, M. J. Kim,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Teacher's Self-esteem on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48, No.3, pp.272-293, 2013.
- [12] S. H. Baek,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Teacher Efficacy*,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 [13] J. J. Lee, H. M. Kim, Influence of Teachers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nalysis by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Child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8, No.2, pp.102-120, 2012.
- [14] S. O. Song, H. J. kim, Y. J. Sung, The Effects of the Workplace Satisfaction and Happiness According to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5, No.3, pp.89-107, 2015.
- [15] M. S. Choi, D. H. Cho, The Effect of Happines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4, pp.239-256, 2015.
- [16] H. I. Hwang,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teacher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2, No.2, pp.157-180, 2013.
- [17] J. K. Hwang, Relationship among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Self-Efficacy, and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1, No.3, pp.7-25, 2017.
- [18] J. H. Choi, Y.S. Shin,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Teacher Efficacy on the Job Satisfaction of Nursery School Teachers. Vol.23, No.4,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p.53-76, 2019.
- [19] K. A. Le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ir Job Related Variables: Based on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Role Performing Ability, Turn over Intention*,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eui University, Korea.
- [20] S. E. Bae, *A Study on the Effect of Happiness, Occupational Stress and Teacher Efficacy of Teachers on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Infants in Infant Classroom*,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 [21] J. Y. Oh, The Analysis on the Predicting Variables Affecting Sensitivities of Teacher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6, No.1, pp. 233-253, 2012.
- [22] K. D. Yi, *The effect of teacher's knowledge about infant development and Efficacy of child care on Teacher's development leve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Korea.
- [23] M. R. Kim, E. H. Lee, Y. J. Lee, The effect of teachers stress,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eachers efficacy on teachers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3, No.4, pp.57-76, 2018.
- [24] B. K. Choi, *The Influences of Child-Care Teacher's Work-Life Balance on Happiness and Turnover Inten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Korea.
- [25] J. S. Park, S.h. Moon. Relationships Among Child Care

- Teacher's Ego Resilience, Organizational Culture, Job Stress, and Feeling of Well-be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0, No.1, pp.839-854,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1.59>
- [26] Y. J. Choi, K. M. Lee,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preschool educators' job satisfaction, flow an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0, No.3, pp.195-214, 2010.
DOI : <http://dx.doi.org/10.18023/kiece.2010.30.3.009>
- [27] J. I. Kim, *The Effect of the Happiness Feeling of Child-care Teacher on the Teacher's Efficac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Child*,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28] E. J. Park, *A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and Interaction Between Teacher-Children*,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 [29] S. W. Han, *The Effect of Teacher's Efficacy and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Korea.
- [30] S. R. Kim, I. S. Choi, The effects of kindergarten teachers happiness on ego resilience and teacher efficacy,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2, No.1, pp.29-51, 2017.
- [31] Y. O. Choi,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Job Stress and Happiness by Teach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Korea.
- [32] E. S. Lee, K. N. Lee,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Child Care Efficacy and Commitment on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6, No.4, pp.107-127, 2016.
DOI: <http://dx.doi.org/10.21213/kjec.2016.16.4.107>
- [33] S. J. Kim, H. W. Chung,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perceived by child-care teachers, teacher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6, No.2, pp.1-19, 2021.
- [34] Enochs, L. G., Riggs, I. M,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fficacy belief instrument for elementary teachers. *Science Education*, Vol.79, pp.63-75, 1990.
- [35] H. Y. Shin,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Korea.
- [36] Argyle, M. (2001). *The psychological of happiness* (2nd ed.). New York: Routledge.
- [37] S. M. Kwan. "Positive Psychology". Hakgisa. 2008.
- [38] S. Y. Cho, E. J. Baik, H. G. Kim, Y. H. Kwon, J. N. Chung, Study for Validation of the Korean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Scale(K-CTJ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9, No.2, pp.1-12, 2011.
- [39]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40] Seligman, M. E.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41] B. K. Joo, An Investigation of Morale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Vol.12, No.4, pp.377-396, 2009.

임 진 형(Jin-Hyung Lim)

[중심회원]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00년 3월 ~ 2004년 2월 : 우송정보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 2004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사교육, 유아교육교수법

고 지 애(Ji-Ae Ko)

[준회원]



- 2012년 2월 :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사)
- 2021년 8월 :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유아교육학 석사)
- 2008년 3월 ~ 2018년 2월 : 샘 어린이집 교사

<관심분야>

유아상호작용, 놀이지도